

해남 은숙씨네 '사철 밥상' 호주 갑니다



밥을 담은 주발이 인상적인 '꽃밥 시리즈'

8월 3~22일 블랙캣 갤러리서 '은숙씨의 밥상'전

사철 재료로 차려낸 집밥 1년 6개월 앵글에 담아
해남 바다와 눈·밭이 키운 생선·쌀·야채로 요리
"행복한 한끼의 소중함 담은 남도음식에 대한 기록"



'2017년 2월 16일 은숙씨네 밥상'



매일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고 사진을 찍는 김은숙 작가.

잡곡밥과 비지락국, 열무김치와 갓김치 푹고추에 된장.
 먹음직스러운 해남 은숙씨네 사철 밥상이 호주에 간다. 진짜 밥상이 가는 건 아니고 그녀가 매일 차리는 삼시 세끼 밥상 사진이다. 김 씨는 오는 8월3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블랙캣 갤러리에서 개인전 '은숙씨의 밥상(Eunsook's Regular Meal)'전을 연다. 그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세 끼 밥상 사진을 앵글에 담고 있다. 3년을 예정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녀가 차리는 밥상은 거창하고 화려한 게 아니다. 해남에서 난 사철 음식으로 만들어 내는 제철 밥상이다. 봄·여름·가을·겨울 해남 들녘과 바다가 키운 재료들을 활용해 음식을 낸다. 잡곡밥을 기본으로 철에 따라 완두콩, 강낭콩 등을 넣는다. 봄이면 풋풋한 나물이 상에 오르고, 지금같은 여름엔 많이 잡히는 비지락 요리를 자주한다. 항상 빠지지 않는 건 된장, 마늘, 야채다. 김치 종류도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는 놓는다.
 20여년 전 아이들 교육이 끝나자 김은숙(69)씨가 남편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왔다. 밥상은 '집밥'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늘상 차리던 것이다. 특히 남편 작장이 집하고 가깝다 보니 점심도 집에 와 먹을 때가 많았다. 남편은 혼자 식사할 은숙씨를 위해서 "같이 밥 먹어 주러 온다"고 가끔은 웃으며 생색을 내기도 한다.
 10여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김씨에게 '밥상 사진'을 찍어보라고 한 이가 있었다. 행촌문화재단 이승미 관장이다.
 "어느날 은숙씨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게 작품이다 싶더군요." 이 관장은 무엇보다 김씨의 사진이 풍성한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남도의 제철음식, 밥과 국, 나물, 김치에 대한 현대미술로서의 기록이라 생각했다. 또 사라져버릴 지도 모르는 우리 전통 음식과 밥상에 대한 충실한 문화기록이자, 그녀의 삶의 기록이라고 여겼다.
 "처음엔 웃고 말았어요. 뭘 이런 걸 찍나 싶었죠. 무슨 이게 작품이 될까 싶기도 했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관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었어요. 우리 음식의 기록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평생 우리 가족 먹을 밥상을 차린 내 자신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는 거지만 평생 밥상 차리는 건 징글징글하잖아요(웃음). 처음에는 무슨 이런 걸 찍느냐했던 남편도 지금은 '어씨(어시스턴트) 역할'을 잘 해 줘요."
 두 사람이 먹는 터라 그릇은 작은 걸 사용한다. 김치, 장아찌 등 기본 밑반찬을 깔고 밥과 국을 내놓는다. 시댁이 명절 때면 올리던 '특제 갈비'는 시어머니 비법을 전수받아 그녀의 장기 요리가 됐다. 밥상을 차리던 먹기 전 의자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다.
 취재 간날 은숙씨의 '오늘 밥상'은 술을 마신 남편을 위한 곱창, 깍두기, 갓김치, 파김치, 비지락 젓갈, 그리고 간단한 나물이었다. 화분에서 키운 고추도 한 자리 차지했다.
 김씨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올려놓다 저작권 문제 등이 불거지자 아예 직접 사진을 찍어보자는 싶어 광주 가톨릭 평생 교육원 등에서 사진을 배웠다. 2015년 첫 개인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라'를 열었고 해남 해남 공릉박물관에서 '낙원 우암리 고천암'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호주와 해남을 오가며 작업하는 신재돈 작가가 중간 역할을 했다. 현재 해남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신작가와 함께 태국의 워크숍에서 참여했던 김씨는 당시 호주 갤러리 측 사람을 만났고 '밥상 사진'을 보여주게 됐다. 당시 갤러리 관계자는 "정말 이 음식을 매일 먹는 거냐. 판타스틱하다. 어메이징하다"며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밥상에 감탄을 연발했다.
 이번 전시에는 밥상 사진과 함께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키워낸 자연의 모습들도 함께 담겼다. 막 모내기를 마친 논,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논, 맛갈스런 조개를 키워낸 갯벌과 바다 등이다.
 "우리 밥상이 별게 없어요. 난, 다 이렇게 먹는 줄 알았죠(웃음) 생각해 보니 밥을 먹기 위해 살더라고요. 밥이 생명줄이죠. 도시 사람들은 한끼 때문에. 이리지만 그런 건 아니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승미 관장은 "세상에 많은 예술작품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 작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작품들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야말로 매일 '밥상'을 차리는 은숙씨 말고는 대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2017 풍류남도 아트 프로젝트 '은숙씨의 밥상'전은 12월 3일~20일까지는 행촌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3052-58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민연극 '스페셜 라이어' 광주 공연

안내상·이종혁·손담비 출연
8월 19일~20일 문예회관

국민연극 '스페셜 라이어'(사진)가 광주에 상륙한다.
 2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8월19일~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극 '라이어'는 최다, 최대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인기 연극이다. 1998년 국내 초연 이후 '누적관객 500만 돌파', '총 3만5000회' 등의 수식어가 붙었고 세계에서 3번째로 쉬지않고 통연하는 연극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번 광주 공연에는 연극 라이어와 동고동락하며 성장한 주역 안내상, 이종혁, 우현을 비롯한 브라운관과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인 슈, 손담비, 나르샤, 신다는 등이 오른다.
 영국의 희극작가 레이쿠니(Ray Cooney)의 작품 'Run For Your Wife'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거짓말로 인해 서로 속고 속이는 상황,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드는 폭소유발 캐릭터들이 공연 내내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디

작품이다.
 라이어는 1988년 1월 서울 대학로에서 초연한 이래, 꾸준히 사랑받아 온 수작으로 꼽힌다.
 주인공 존 스미스는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생활하는 택시운전사다. 그는 매리라는 부인을 둔 유부남이지만, 손님으로 만난 바버라와 사랑에 빠지며 결혼까지 하게 된다.
 월블턴 집에는 매리, 스트리트엔은 바버라를 두고 사는 이중생활이 시작 된 것. 고대 근무를 활용한 완벽한 이중 생활이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며 엇갈린다. 사건에 협조하던 존은 실수로 다른 주소를 적어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매리 집에는 트루우튼 형사가, 바버라 집에는 포터 형사가 찾아오고, 존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친구 스탠리와 함께 하나씩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인해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간다.
 공연은 19일 오후 3시·7시, 20일 오후 3시에 열리며 만13세 이상 관람가능. 관람료 VIP석 7만7000원·S석 5만5000원. 문의 1688-3820.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17명 선발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오는 9월 8일 개막하는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설명을 담당할 도슨트(docent, 전시 해설사) 17명을 선발, 본격적인 심화교육에 들어간다.
 이번 합격자들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기초교육 후 시연평가 등 3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당초 10여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수준높은 응모자 역량, 관람객서비스 등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늘렸다.
 이번 합격자 가운데 10명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에서 도슨트로 활동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10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4명 등이다. 또, 전공별로는 디자인 및 미술분야 7명을 비롯해, 외국어, 전통문화, 역사, 도시공학, 항공서비스, 유희학과 등 다양하게 분포했다.
 전시 도슨트는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람객들 대상으로 지역 문화·관광 등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1등 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은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